

농림수산식품부

축산 관련 대규모 행사 원칙적으로 취소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로 인한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국내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동 질병의 전파 확산 방지를 위한 '축산 관련 대규모 행사 시 신종 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지난 9월 7일 밝혔다.

이 날 축산정책관 주재 하에 검역원, 농협중앙회, 대한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마사회 및 축산관련 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부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신종 인플루엔자가 사람 간, 사람으로부터 가축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대규모 행사는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규모 축소와 함께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 후 개최하기로 했다.

축산 관련 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작한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감염예방 편람'을 기본으로 하여 방역에 필요한 현장 조치사항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사장 입구에 열감지기 또는 에어 샤워기(Air-shower)나 발판소독조 등과 함께 체온 측정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체온 측정소에는 발열 상담자를 배치해야 하며, 항균 마스크를 구비하도록 했다.

행사장 내에 의무실을 상시 운영하고 의료진이 주재하도록 했으며, 화장실 및 주요 시설에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가축은 전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전시할 경우 펜스를 설치하고 전시 후 도축장으로 출하하도록 했다.

행사 주관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행사 전에 행사내용을 통지하고,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감시하는 한편,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감염예방 편람'을 준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신종 인플루엔자의 전파를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참가자들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정(안) 행정예고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동안 실시한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폴란드를 닭·오리 등 가금과 그 생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지역에서 해제하고, 닭·오리 등 가금과 그 생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을 마련코자 지난 9월 1일자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수입위생조건(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참조.

- 다음 -

- 가. 폴란드는 닭·오리 등을 선적하기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어야 함(안 제2조 가)
- 나. 수출작업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함(안 제4조 가)
- 다. 식용축산물은 폴란드의 정부수의사가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안 제5조 가)



기관·단체·소식

라.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컨테이너 등 밀폐된 용기에 넣어 봉인된 원형태로 안전하게 수송되어야 함(안 제8조)

마. 폴란드 수의당국은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10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경기 용인시 토종닭 복합감염으로 폐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지난 9월 15일 의뢰된 경기도 용인 소재 발생농장의 토종닭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스마 병 및 회충증에 의한 복합감염으로 폐사했다고 밝혔다.

감염된 토종닭은 침울, 졸음, 폐사 등의 주요 임상증상을 나타냈으며 최초 발병 후 약 3일 동안 100수 정도의 폐사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4,000수 사육에 500수 정도가 폐사되었다.

국가가축방역사업(조류인플루엔자 예찰사업)에서 확인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는 금년 8월 현재까지 종오리와 육용오리 및 재래시장에서 검색한 총 1,922농가(개소)중 137건이 확인되어 방역 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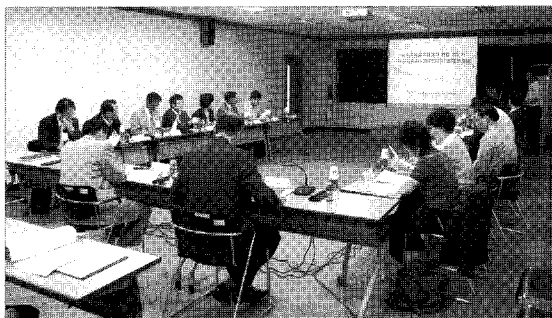
LPAI는 대부분 호흡기 증상과 산란율 저하 등 주요 임상증상을 나타내며 감염일령, 바이러스의 병원성, 복합감염, 사육환경 등에 따라 폐사율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폐사율은 거의 100%로 나타나는 반면 LPAI는 일반적으로 폐사율이 그다지 높지 않으나 사육환경, 위생관

리상태 또는 이번 건과 같이 복합감염이 되었을 경우 폐사율이 상승하여 HPAI로 오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폐사율이 높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보이면 인근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주호 원장은 축산농장에서는 청결한 닭 구입, 격리, 백신접종, 구충, 계사소독, 2차 세균 및 기생충 감염 차단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청정 국이지만 주변국가에서 계속 질병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철새가 국내로 유입하는 계절이 시작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손, 발 소독, 전용작업복 갈아입기, 정기적인 소독, 사료관리 등 농장자체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물가공품유형 개선 전문가 협의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9월 15일 고품질 축산식품 생산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산업계의 생산기반 등을 고려하여 축산식품규격기준연구회와 공동으로 학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15개 기관(단체) 24명의 전문가와 함께 식육가공품유형 개선 등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축산식품규격기준연구회 전문가들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 고시)이 제정되어 10여년 지나는 동안 여러 차례의 고시 개정이 있었으나, 현재 축산물가공품유형 분류체계는 변함이 없어 다양하게 출시되는 축산물가공품제품 생산에 부응하기 어려워 동 고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생햄 및 발효소시지 등 소비자의 기호시대적 요구에 따라 산업계에서 개발하여 생산되는 식육가공품 등을 포함해 축산물가공품 등의 유형이 새롭게 고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축산물이면서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장하는 편육, 수육제품 등에 대해서는 동 제품의 주 원료가 축산물인 점을 감안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관장함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새로운 유형 또는 기존 유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향후 검역원내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식육가공품 유형 개선과 관련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 고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질병 진단업무(ISO9001) 인증 획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 질병진단 업무절차 전반에 대해 국제 표준규격인 ISO9001(품질경영 인증)을 획득함(2009. 9. 4)에 따라 지난 9월 17일 동물위생연구동 국제회의실에서 이주호 원장을 비롯 한국품질보증원 송준일 사장, 9개도 축



산위생연구소장 및 관계관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전달식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검역원을 비롯한 인증 추진팀을 약 60명(검역원 15, 축산위생연구소 45)으로 구성하여 질병진단 업무현황을 분석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업무처리 매뉴얼을 완성했으며 수차례 자체 점검과 수정·보완을 거친 후 한국품질보증원에 인증심사를 요청하여 2009년 9월 4일자로 국제표준 규격인 ISO 9001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작성된 국제 표준 매뉴얼의 주 내용은 동물질병 진단의뢰, 해부조직검사, 전문실험실검사, 사후관리 등의 내용으로 약 4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철저히 잘 운영해야만 3년 후에 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검역원에서는 지속적인 진단 매뉴얼 표준화, 선진 진단 기술 교류, 중앙 및 지방기관의 역할 분담 및 위상제고, 병성감정기관의 선진화를 위한 진단관련 전문인력, 시설 등에 대한 법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관·단체·소식

농촌진흥청

닭 유전자원 중복 보존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15년에 걸쳐 개발한 재래닭을 비롯한 닭 유전자원 생축 6품종 1,400여수를 전라북도 남원시 소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서 중복 보존한다고 지난 9월 10일 밝혔다.

같은 날 일산에서 이희훈씨가 키우고 있던 긴꼬리닭의 일부 계통도 중복 보존이 가능하도록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 기탁했다. 민간 농가에서 가금 유전자원을 기탁한 것은 최초.

가축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복 또는 분산 보존하여 각종 전염성 질병과 천재지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그동안 국내에는 임시적으로 중복 보존하는 방법을 이용해 왔다.

실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성환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와 수원에 위치한 축산생명환경부에 분산 배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성환과 수원과의 거리는 불과 31km 밖에 안 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기존에 재래닭이 보존되어 있는 천안 소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남원에 위치한 가축유전자원시험장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70km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의 가금류중복보존축사는 닭 4,200수와 오리 600수를 보존할 수 있게 계사 4개동 오리사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 질병유입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3단계 방역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 리승용 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유전자원에 대하여도 가축유전자원시험장내에서 중복보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축산 바이오가스생산 시설(SCB-M)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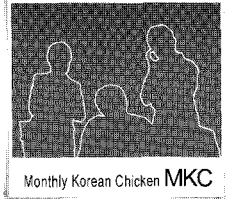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축산 바이오가스(SCB-M) 생산 시설’의 준공식을 지난 9월 23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최했다.

하루 1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해서 300kw의 전기를 축사 등에 공급하게 되는 이 시설은 국내 환경에 적합한 농가 보급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연순환 수익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진중공업그룹이 공동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1998년도부터 혐호기 발효증발을 이용한 가축분뇨 처리기술을 시작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개발해 왔는데, SCB시설로 고품질 액비생산의 효과를 검증 받았으며, 여기에 바이오가스 시설이 추가되어 SCB-M으로 완성된 것이다.

SCB-M 시설은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바



이오가스 시설과는 몇 가지 차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바이오가스 시설의 한계성인 추운 겨울철과 심한 일교차에 의한 바이오가스 생산의 불안정 문제를 퇴비단에서 발생하는 열과 폐열 등으로 혐기소화조를 보온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스 생산 후 남는 폐액은 SCB시설을 이용하여 악취 발생이 없고 성분이 균질하며 저농도인 고품질 SCB 액비를 생산함으로써, 농경지와 수목 및 골프장 등 폭넓게 자원화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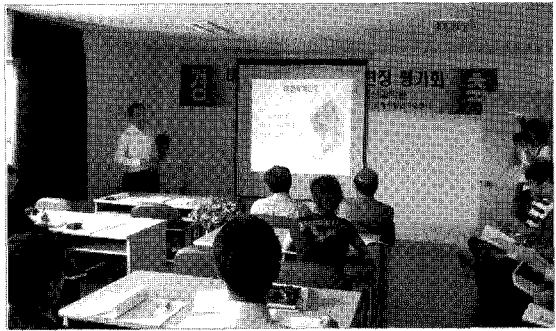
특히 농가 및 공동자원화시설에 보급되어 있는 190개소의 SCB시설에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추가비용으로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액비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 시설을 활용하여 돼지분뇨 뿐만 아니라 한우, 젓소, 닭의 배설물과 도축부산물 등을 이용한 메탄가스 발생량 최대화 기술을 개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저비용 저에너지 소비형 시설과 수익형 모델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 SCB(Slurry Composting & Biofiltration, 퇴비단여과법) : 퇴비화 시설 바닥을 물빠짐과 통기성이 용이하도록 하여 생물여과 기능을 가지게 함으로써 양질의 저농도 액비생산과 필요 시 저비용 정화처리로 가축분뇨 자원순환 조기정착이 가능한 방법
- ※ SCB-M(SCB with Methane production) : SCB와 연계한 메탄생산 시스템. SCB여과상과 메탄생산조(소화조)를 연계함으로써 겨울철 소화조 온도의 증온대 유지, 소화액의 고품질 액비화 및 증발처리 가능

국립축산과학원

대형육계 생산 현장평가회 개최



최근에 유명 탤런트 등이 닭고기 가슴살 다이어트로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하면서 닭고기 가슴살 등 부분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의 여건은 아직도 1.5kg 정도의 소형계 생산방식에 머물러 있어 부족한 부분육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은 부분육 생산이 많은 대형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1993년부터 대형육계 생산 연구를 시작해 대형육계 생산기술을 정립하고 이러한 기술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 전북 김제에서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닭고기는 대부분 32~35일령의 육계를 도계한 것으로 도체 무게가 1kg 전후로 부분육 생산이 어렵고 성성숙이 되기 전에 도계해 충분한 닭고기의 맛을 내기 어려웠다.

그러나 대형육계는 출하일령이 42~49일로 생체 무게가 2.5~2.8kg로 살코기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며 맛 인자인 글루타민산(Glutamic acid),



가·관·단·체·소·식

이노신산(Inocinic acid) 등이 많아 맛이 좋고 고기가 쫄깃하다.

특히 대형육계 생산시 부분육 생산이 가능하고 가슴살 생산량이 많으며 입추시 병아리에 대한 가격 부담이 낮아져 경영비도 크게 절감된다.

농진청에서 10여년의 연구를 토대로 정립한 대형육계 생산 핵심기술은 환기 시설이 설치된 유창 또는 무창계사 등 완전계사에서 사육해야 하며 사육밀도는 출하체중을 기준으로 m²당 15수로 준수해야 한다.

병아리는 암·수를 분리 사육하여 암컷은 1.5kg 내외에서 출하하고 수컷은 대형 닭으로 출하한다.

또 급사증후군(SDS)을 막기 위해 사육초기에는 제한 점등 방법으로 성장을 억제하고 후기에 보상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점등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양계산물 소비 홍보 일환으로 지난 9월 1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2009 닭고기·계란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전국요리학원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요리를 공부하는 학생 및 일반인 등 각계각층에서 참가를 신청한 257팀의 출품요리를 1차 심사하여 본선에 오른 40개 팀이 양계산물을 이용해 다채로운 요리경연을 펼쳤다.

이번 요리경연대회 대상 수상자는 '닭고기마늘 피자'와 '계란단자', '닭채소부케'를 요리한 김태형, 유영진씨에게 돌아갔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졌다.

경연대회 종료 후 본선 입선 40작품의 실물전시와 시식이 진행됐으며 참가요리 작품들에 대한 사진과 재료, 요리법이 담긴 책자를 발간하여 소비자들에게 배포, 보다 쉽고 간편하게 양계산물 요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대한양계협회

2009 전국 닭고기·계란 요리경연대회 개최



한국가금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오는 11월 13일 개최키로

한국가금학회(회장 박장희)는 지난 9월 18일 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추계 학술대회를 오는 11월 13일 진주산업대학에서 개최키로 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진주산업대학 100주년 기념과 연계하여 개최하게 될 이번 학술대회는 신진과학자 발굴은 물론 포스터 전시 등 가금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학술대회로 개최가 준비된다.

특히 가금학회지가 후보등재지에서 등재지로 선



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보다 내실있고 많은 편수의 논문이 투고되어 발표될 수 있도록 필자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김재홍 서울대학교 교수 뒤를 이어 수석부회장으로는 한재용 서울대학교 교수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사)대한영양사협회

‘학교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로 우리의 우수한 전통 식문화가 상실되고 있어 국민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및 발전,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천 등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올해 5월 식생활 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는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확산을 위해 학교장, 학부모, 영

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의 기본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국 760여만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을 통해 한국전통음식의 문화적 가치와 우수성, 음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가짐 등 학생들이 바른 식문화와 건전한 식품 소비행태를 갖추어 스스로 건강을 유지·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의원 김영진·황우여 공동주최, 교육과학기술부 후원으로 지난 9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교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제1부에서는 국민의 식생활 현황과 문제점, 식생활 교육의 의의 및 파급효과, 국내외 식생활 교육 추진 사례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전해경 부장(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의 강연에 이어 2005년 식육기본법 제정을 기점으로 추진된 일본의 식육 추진 시책 및 학교 영양교사에 의한 식육지도 실천 사례와 더불어 외국에서의 식생활 교육 현황에 대한 정혜경 교수(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제2부 본 토론에서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김경주 회장((사)대한영양사협회)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본 주제발표에서는 학교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영양(교)사의 적극적인 자세와 능력 배양, 식생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기반 조성,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효과적인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식생활 교육 관련 정부부처들의 유기적인 협조, 학교 교육의 주체인 학교장, 교사를 비롯하여 학부모, 학생들의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정책제언이 제시되었다. 